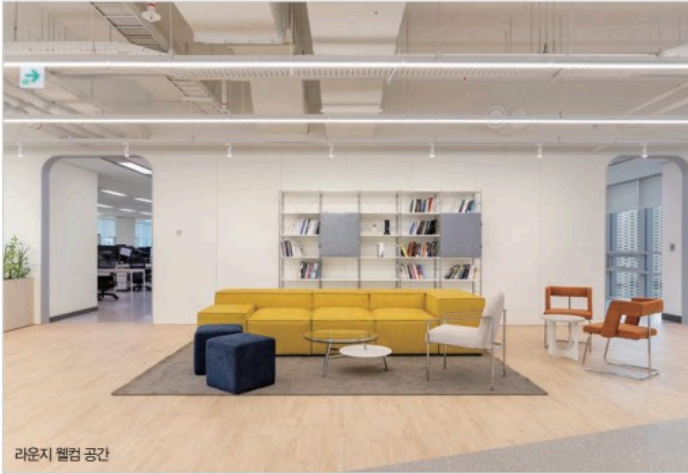




▶ 타운홀 공간



라운지 웰컴 공간



입구에서 바라본 라운지 전경

‘마카롱팩토리’ 자유로움과 소통이 어우러진 공간

인스태이 디자인,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제안



건축개요

프로젝트명: 마카롱팩토리 | **설계:** INSTAY DESIGN (02-2157-8302, www.instaydesign.com) | **시공:** INSTAY DESIGN |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E타워 7층 | **면적:** 1100.39㎡(332.87평) | **바닥:** 카펫타일, 우드 LVT, 테라초 LVT | **벽체:** 수성 도장, 아트 도장, 패브릭 알판 | **천장:** 노출 천장 위 미세 수성 도장 | **사진:** 김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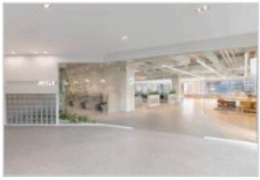
대한민국 1등 차량 관리 앱 마이클(MYCLE)로 자리 잡은 (주)마카롱팩토리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발판으로 세상에 없던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옥 이전을 통해 마카롱팩토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의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결정을 실행했다.

디자인을 맡은 인스태이 디자인은 마카롱팩토리의 기업 정체성을 고려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 모두를 생각하며, 스타트업 회사다운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했다. 계단 형태의 타운홀 공간, 큰 테이블과 부스 시트가 마련된 캔틴 공간, 집중 업무를 할 수 있는 포커스룸 등 획일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무환경을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만큼, 꼭 필요한 디자인을 하고 그 이상의 디자인은 하지 않았다. 이는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낭비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공간은 크림 색상의 화이트를 톤온톤으로 활용하여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크림과 화이트 색상은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깔끔한 인상을 주어 사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공간의 다른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조화로우며 형성한다. 라운지에는 멀리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의 푸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식물들은 단순히 장식적인 역할을 넘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자연과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녹색 식물들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녹색의 환경을 갖추고 싶어 하는 구성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오피스



◀ 출입구는 사선으로 설계되어 공간감을 확보했으며, 유리 벽과 자동문을 활용하여 개방감을 더욱 높였다.



라운지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캔틴 공간은 큰 테이블과 바리솔 펜던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플랜트박스를 배치했다.



캔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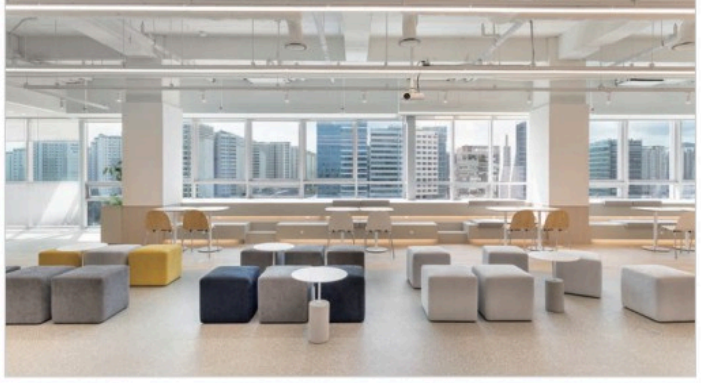
출입구는 사선으로 설계되어 공간감을 확보했으며, 유리 벽과 자동문을 활용하여 개방감을 더욱 높였다. 로고가 있는 전면 벽은 심플하면서도 아트 도장을 사용해 섬세한 질감을 살려 완성했다. 출입구에서 이어지는 라운지 공간은 노출 천장을 통해 개방감을 주었고, 전면 커튼월을 통해 전망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도록 했다. 또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는 테라초와 우드 패턴의 바닥재를 사선으로 마감하고, 천장의 라인 조명을 동선에 맞춰 1자로 배치하여 공간감을 풍부하게 표현했다.

출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라운지의 웰컴 공간은 소파와 러그로 편안함을 강조하고, 책장을 배치하여 독서가 가능하도록 꾸몄다. 라운지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캔틴 공간은 큰 테이블과 바리솔 펜던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플랜트박스를 배치했다. 바리솔 펜던트 조명과 플랜트박스의 유리 블록 간접조명은 공간을 은은하게 밝혀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단순한 음료나 간식 제공을 넘어 사무실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허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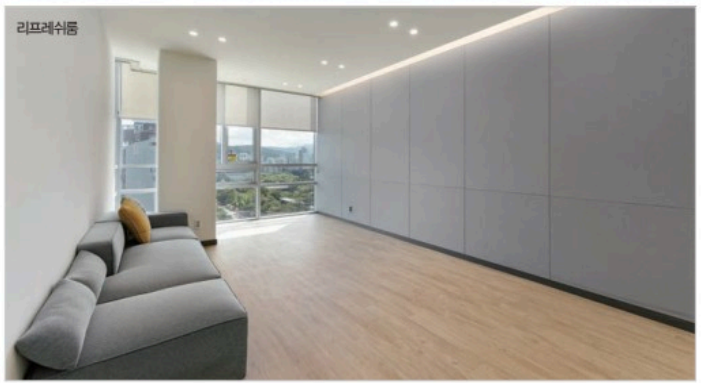
타운홀은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전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계단을 활용한 업무 및 휴식 공간으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테이블, 의자, 스톨, 빈백 등을 활용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개방된 라운지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릴렉스룸을 배치해 인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캔틴 벽체를 활용하여 후면에는 부스 시트 존을 마련해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채광이 좋은 창가에는 회의실을 배치하여 외부 풍경을 감상하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실 중 한 곳은 리프레시룸으로 만들어 직원들이 스트레칭과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다. 오픈오피스로 출입하는 동선은 상하부로 나뉘어 효율성을 높였으며, 동선상에 배치된 스탠딩 테이블은 업무공간 속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소회의실은 업무공간 가까이에 두어 킥 미팅이 가능하고, 포커스룸은 집중이 필요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배치했다. 대회의실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외부 손님들이 바로 회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대회의실 앞에는 1인 암체어를 배치해 손님들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석현 기자

타운홀,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테이블, 의자, 스톨, 빈백 등을 활용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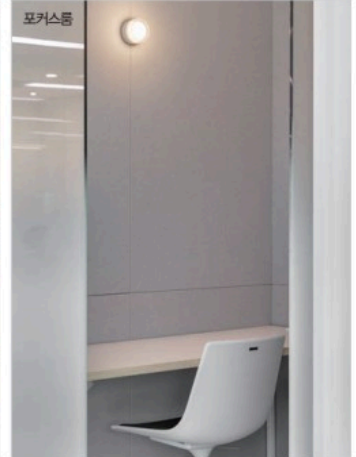
리프레시룸



채광이 좋은 창가에는 회의실을 배치하여 외부 풍경을 감상하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오픈 오피스



포커스룸